신 년 사

정 상 훈

- 월간『考試界』발행인
- 도서출판『고시계사·미디어 북』대표
- 법무경영교육원 원장
- 사)한국잡지협회 교육원 원장
-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유라시아세계본부 글로벌 지원의장

아름다운 동행

어느덧 2019년도의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 쳇바퀴 돌 듯 반복되던 일상마저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루를 잘 살아냈는지,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은 얼마나 이루었는지 돌이켜본다. 아쉬운 나날들이 생각나고 이루지 못한 일들이 떠올라 스스로 실망스럽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살아온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

아직은 잘 해 볼 기회 있으니(來者尙可追)
이제부턴 모쪼록 다시 시작해야지(自此須更始)

⋮

–『계곡(谿谷)선생집』25권, 갑인년 섣달 그믐달 밤의 감회(출처/한국고전번역원)

위의 글은 조선 중기의 문신 계곡(谿谷) 장유(張維)의 오언고시 162수 중의 한 수이다. 인조반정 후 경기도의 어느 한 고을에 은거하면서 섣달 그믐달 밤에 그 동안 살아온 날들을 반성하면서 쓴 시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절반 지나가고 후반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고 했다. 그러나 전임 대통령 탄핵의 상처를 딛고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이라던 약속은 안타깝게도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안보와 경제, 국민통합까지 전방의 위기에 처하는 부정적 의미에서의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펼쳐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라고 강조했지만, 조국사태를 거치면서 이런 약속이 얼마나 위선이었는지 드러났다.

현 정권 들어 지금까지 대법원장과 대법관 14명 중 9명이 교체되었다. 9명 중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5명이 진보성향의 우리법과 민변출신들이다. 이에 따라서 '코드판결'이 현실화하고 있다. 소신에 따른 병역거부,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사건 파기환송 등에서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른 판결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승만·박정희 前 대통령을 'A급 민족반역자'로 공격한 이른바 '백년전쟁'을 두둔한 결정에선 경향성이 선명하였다.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해당 영상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타당하다는 원심판결에 대해, 7(파기) 대 6(인용)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방통위와 1·2심 재판부는 모두 명백한 사실 왜곡과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이 대법원판결은 앞으로 전국의 법원판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법관이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성향이나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심판한다면 사법부는 곧 권력의 시녀가 될 것이며, 법치주의도 그 본래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국민들은 제대로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본다.

조국 前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직후 '공정'이 우리 사회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제1야당 소속 국회의원 50명 이상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 우회로를 열어주자"는 취지의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졸업자에 한해서만 자격을 주고 있다. 개정안은 변시 예비시험을 신설, 로스쿨을 다니지 않았어도 예비시험에만 붙으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로스쿨로 단일화한 법조인 배출 창구를 '로스쿨졸업자+예비시험합격자'로 이원화하자는 취지다. 로스쿨 도입취지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이들을 선발하고자 했으나 취지와는 달리 경제적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현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통합을 저하시킬 수 있어 누구나 시험 볼 기회가 열려있는 예비시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19년을 정리하는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공명지조'(共命之鳥)가 선정되었다. 응답한 1046명의 교수 가운데 347명이 선택한 공명지조는 『아미타경』을 비롯한 많은 불교경전에 등장하는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로, 글자 그대로 '목숨을 함께 하는 새'다. 서로가 어느 한 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상은 공멸하게 되는 '운명공동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한국의 현재 상황은 상징적으로 마치 공명조를 바라보는 것만 같다. 서로를 이기려고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지만 어느 한 쪽이 사라지면 죽게 되는 것을 모르는 한국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어 선정하게 되었다고 본다.

지난 65년 창간이래 애독자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를 이끌어갈 동량을 키워내는데 일조하겠다는 당사의 설립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보며, 앞으로도 변호사시험, 5급 공채(행시), 입시, 법원고시와 다양한 법률소식에 목말라하는 애독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아무쪼록 庚子年 새해에는 큰 꿈을 향해 뛰어 목적을 달성하는 여러분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으며, 댁내에 건강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드린다.